

DuPont, LED 생산기술 도입

Cambridge Display가 인가 ... 잉크젯 증착방식으로 화소형성

Cambridge Display Technology가 독점적인 Full-Color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DuPont에 인가하기로 합의했으며 DuPont는 이를 LEP(Light-Emitting Polymer)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

Cambridge와 DuPont의 기술 및 프로세스 이전합의는 양사가 2001년 합의한 LEP의 생산 및 특허인가 협의 안에서 확대된 것이나 신규 계약조건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.

LEP 기술은 유기물질을 사용해 빛과 전류를 발생하는 박막형의 방사성 기술로 LCD(Liquid Crystal Display)에 소요되는 코스트, 공간, 질량 및 에너지 소모성의 백라이트를 없앨 수 있다.

또 LDP에 비해 명암 대비가 높고 이미지가 선명할 뿐만 아니라 전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텔레비전 및 이동성 전자장비용으로 개발되고 있다.

LEP는 또한 잉크젯 증착방식으로 Glass Substrate 및 Flexible Substrate에 Full-Color 화소를 형성할 수 있는데 Cambridge는 앞으로 기술 정보를 다른 디스플레이 생산기업들에게 인가할 것으로 보인다.

Munich University 및 Avecia 계열의 Covion은 최근 LEP의 화소형성 기술인 Solution Processing Method를 공개했다.

한편, Cambridge는 영국 Godmanchester 플랜트로부터 LEP 디스플레이를 처음 수주했다. 선적은 디스플레이 기술 및 보조제품 유통사인 Trident Displays가 맡는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2/19>